VARMAX를 통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





2023021402 원윤정

- 1 주제 선정 배경
- 2 선행연구 및 데이터 설명
- 3 분석 과정
- 4 결론 및 추가과제

Part 1 주제 선정 배경





초저출생 문제를 다룬 교육방송(EBS) 다큐멘터리 중,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.78명이라는 말을 듣고 보인 반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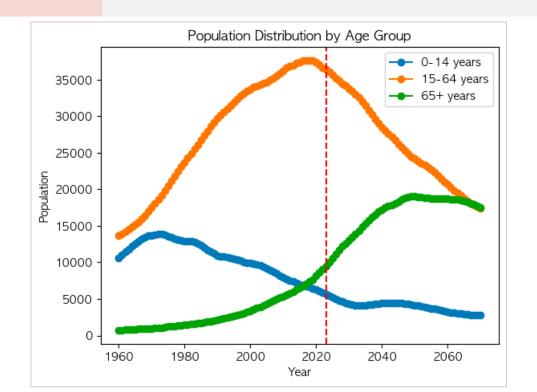
미국,프랑스,이탈리아와 같은 거의 모든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이 하락해도 합계 출산율이 1.5명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과 달리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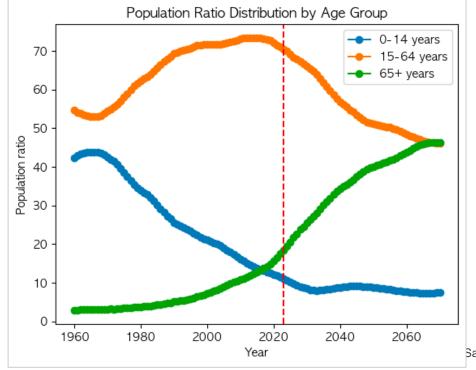
한국은 2018년 1.0명이 깨진 후 현재 0.7명 기록

A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.7명으로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10년 째 꼴찌

한 세대만 지나도 200명이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, 한 세대가 더 지나면 200명이 25명 이하가 됨

15세~64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약 3738만 명이었지만, 2070년이 되면 약1736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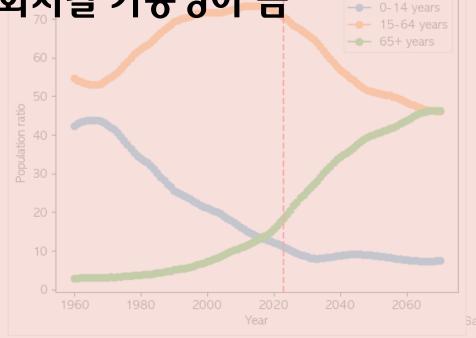
Saebyeol's PowerPoint

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.7명으로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10년 째 꼴찌

한 세대만 지나도 200명이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, 한 세대가 더 지나면 200명이 25명 이하가 됨

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규모





Part 2

선행연구 및 데이터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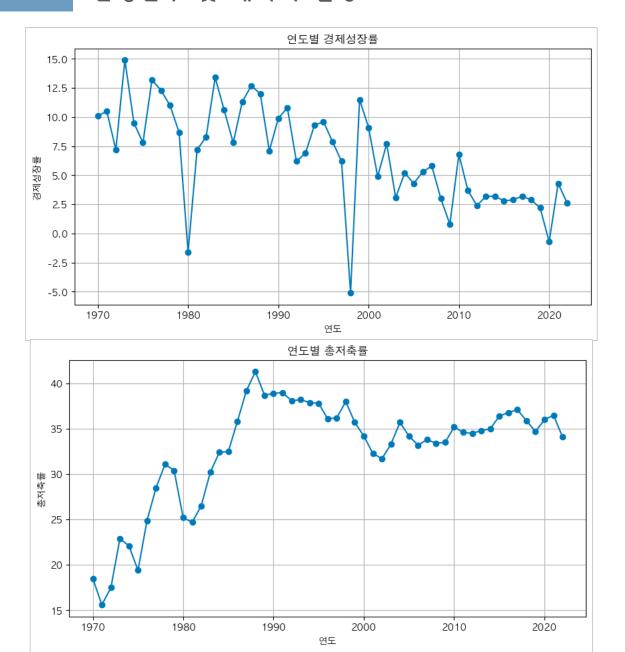
- 인구구조 변화가 <mark>생산성</mark>에 미치는 영향
 - 인지능력 및 신체적 기능 약화로 생산성이 하락 [Shirbekk(2004)]
 - 고령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나,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낮춰 경제성장률 저하 [김용진,이철인(2013)]
 - 한국의 경우 노동력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둔화시킴 [안선영,김동헌(2014)]
- 인구구조 변화가 **물가상승률에** 미치는 영향
 - 고령화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없으나,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킴 [강환구(2017)]
 - 고령화는 물가상슝률을 하락시키지만, 그 정도는 크지 않음 [이정석,이준희(2018)]
 -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고령화는 물가상슝률을 낮춤 [Gajewski(2015)]
- 인구구조 변화가 **투자, 저축 및 금리에** 미치는 영향
 - 고령화는 장기저축률을 감소시킴 [전영준(2006)]
 - 고령츙은 예비적 동기에 따라 저축 성향이 존재 [유경원(2014)]
 - 생산가늉인구 감소시 자본노동 비율의 중가 및 자본의 한계수익률 감소로 인해 투자가 위축됨 [장동구(2011)]
 - 고령츙은 위험기피 성향이 높아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게 됨 [이상호 외(2011)]
 - 장기자산에 대한 수요 중가로 인해 장기금리 하락 [Yoon et al.(2017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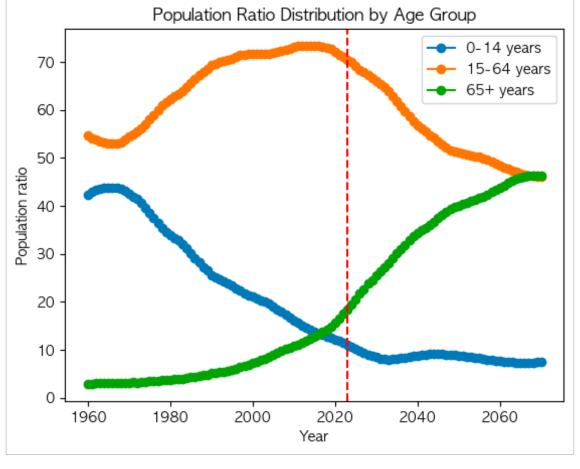
구분	변수	항목명 수집 가늉 기간 (단위)		출처
인구변수	인구 구조 변수	~14세 인구 비중	1960~2070 (년)	통계청
		15세~64세 인구 비중	1960~2070 (년)	통계청
OTOT		65세 이상 인구 비중	1960~2070 (년)	통계청
		총 부양비	1960~2060 (년)	통계청
	경제성장 변수	경제 성장률	1970~2022 (년)	한국은행
	생산성 변수	GDP	1953 ~ 2022 (년)	한국은행
	투자 변수	총 투자율	1970~2022 (년)	한국은행
		GDP 대비 통합재정규모	1970~2023 (년)	기획재정부
거시변수	저축 변수	총 저축률	1970~2022 (년)	한국은행
		GDP 대비 총 저축	1970~2022 (년)	한국은행
	금리 변수	단기 금리	1994~2022 (년)	한국은행
	물가 변수	물가 상슝률	1966~2022 (년)	통계청
	 통화량 변수	M2(평잔)즁감률	1986 ~ 2022 (년)	한국은행
	시장 변수	실업률	1999.06 ~ 2023.09 (월)	통계청

<u>○Saeby</u>eol Yu. Saebyeol's Power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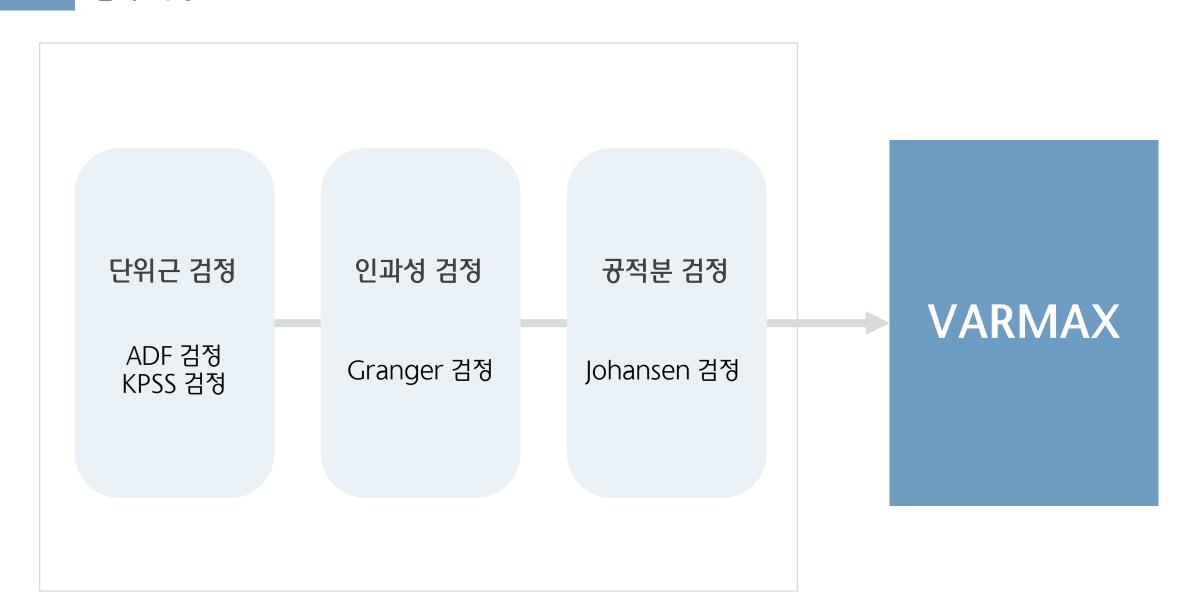
구분	변수	항목명 수집 가능 기간 (단위)		출처
인구변수	인구 구조 변수	~14세 인구 비중	1960~2070 (년)	통계청
		15세~64세 인구 비중	1960~2070 (년)	통계청
etet		65세 이상 인구 비중	1960~2070 (년)	통계청
		총 부양비	1960~2060 (년)	통계청
	경제성장 변수	경제 성장률	1970~2022 (년)	한국 은 행
	생산성 변수	GDP	1953 ~ 2022 (년)	한국 은 행
거시변수	투자 변수	총 투자율	1970~2022 (년)	한국은행
		GDP 대비 통합재정규모	1970~2023 (년)	기획재정부
	저축 변수	총 저축률	1970~2022 (년)	한국 은 행
		GDP 대비 총 저축	1970~2022 (년)	한국 은 행
	금리 변수	단기 금리	<mark>1997</mark> ~2022 (년)	한국은행
	물가 변수	물가 상슝률	1966~2022 (년)	통계청
	통화량 변수	M2(평잔)즁감률	<mark>1986</mark> ~ 2022 (년)	한국 은 행
	시장 변수	실업률	<mark>1999</mark> .06 ~ 2023.09 (월)	통계청

<u>○Saeby</u>eol Yu. Saebyeol's PowerPoint





Part 3 분석 과정



단위근 검정

정상성

시계열이 어떤 시점에서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고, 특정한 시차의 길이를 갖는 자기공분산을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값을 지님

	ADF 검정	KPSS 검정	
귀무가설	정상 시계열이 아니다 (H1: 정상 시계열이다)	정상 시계열이다 (H1: 정상 시계열이 아니다)	
차분없이 정상성 만족 변수	GDP대비정상수지	_	
1차 차분 후 정상성 만족 안하는 변수	국내총생산(명목GDP), 총부양비, M2평잔	국내총생산(명목GDP), 총부양비, M2평잔	
1차 차분 정상성 만족 x 변수들 로그변환	M2평잔 제외, 모두 정상성 만족o	모두 정상성 만족x	

Part 3 분석 과정

인과성 검정

Granger 인과검정

Q) 단일 시계열보다 다중 시계열로 설명력을 더 얻을 수 있는가? 귀무가설: X가 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- x → y, y → x 양방향 인과성 확인
- '총고정투자액', '총부양비' 인과성 없음 → 변수 제거
- cf) '총부양비'
- : 생산가능인구 중 유소년 및 고령인구 비중의 합이기 때문에, 저출산,고령화 현상을 엄밀하게 반영하지 못함



١t

분석 과정

공적분 검정

Johansen 검정

- Q) 다중 시계열이 장기적 기간을 두고 안정적인 연관성을 보이는가? 즉, Granger 검정을 통해 필터링한 변수 조합 중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해 공적분 검정 실시
- 장기적 관계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
- '경제성장률', '소비자물가상슝률(%)', '총저축률'이 최적의 조합으로 결정됨
- 하지만 해당 변수가 모델의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들을 드랍하지 않음

```
calc_sig_dist(df_sta1.columns)

v 0.1s

df_sta1.columns

stats: [266.32, 171.02, 110.14, 77.0, 44.49, 22.21, 11.07, 1.28]

sig-level: [175.16, 139.28, 107.34, 79.34, 55.25, 35.01, 18.4, 3.84]

significant_yn: [True, True, True, False, False, False, False]

dist: 11.24

df_sta1.columns

v 0.0s

Index(['경제성장률_diff', '소비자물가상승률(%)_diff', '총저축률_diff', 'GDP대비재정수지_diff', 'X1_diff', 'X2_diff', '국내총생산(명목GDP)_log', 'M2평잔_log'], dtype='object')
```

최종적으로 사용한 내생변수

: '경제성장률', '소비자물가상슝률(%)', '총저축률', 'GDP대비재정수지', '국내총생산(명목GDP)', 'M2평잔'

최종적으로 사용한 외생변수

: 총인구를 세 그룹(0~14세, 15~64세, 65세 이상)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이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 0 ~14세 구성비: W_{1t} , 15세~64세 구성비 : W_{2t} , 65세 이상 구성비 : W_{3t}

이때, 완전공산성(perfect multicollinearity) 문제를 피하기 위해

$$X_{1t} = W_{1t} - W_{3t}, X_{2t} = W_{2t} - W_{3t}$$
로 외생변수 $X_t = (X_{1t}, X_{2t})$ 구성

 X_{1t} 과 X_{2t} 의 계수 추정을 통해 W_{1t} , W_{2t} , W_{3t} 각각의 계수 추정 가능

- $\beta_1 X_{1t} + \beta_2 X_{2t} = \beta_1 W_{1t} + \beta_2 W_{2t} (\beta_1 + \beta_2) W_{3t}$
- β_1 , β_2 , $\beta_3 = -(\beta_1 + \beta_2)$ 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Wald statistic 이용

VARMAX

• train set: 1986년~2015년 / test set: 2016년~2022년

VARMAX(p,q)	(1,0)	(2,0)	(1,1)	(2,1)	(1,2)
MAPE	1.2495	1.2821	1.2374	1.8001	1.6894

최종적으로 사용한 모델: VARMAX(1,1)

$$Y_t = A_0 + A_1 Y_{t-1} + B_1 X_{1t} + B_2 X_{2t} + \epsilon_t - \theta_1 \epsilon_{t-1}$$

Part 4 결론 및 추가과제

결론 및 시사점

인구 비율 계수 추정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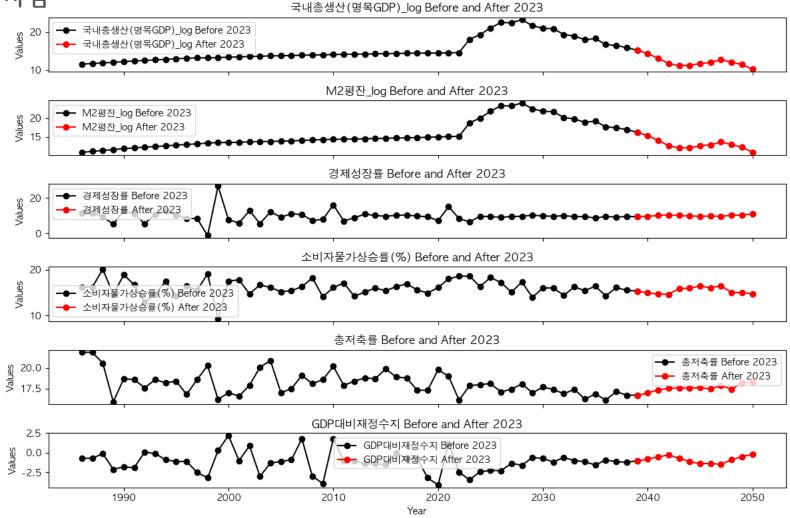
• $\beta_1 X_{1t} + \beta_2 X_{2t} = \beta_1 W_{1t} + \beta_2 W_{2t} - (\beta_1 + \beta_2) W_{3t}$

cf) 0 ~14세 구성비: W_{1t} , 15세~64세 구성비 : W_{2t} , 65세 이상 구성비 : W_{3t}

	경제성장률	소비자물가상승률	총저축률	GDP대비 재정수지	국내총생산	M2평잔
eta_1	1.1700 (***)	-5.0252(***)	-2.0908(***)	2.0792 (***)	-5.0287 (***)	-5.1078 (***)
eta_2	0.4772 (***)	-0.7097 (***)	1.1951 (***)	0.3448 (***)	0.1815 (***)	0.1014
eta_3	-1.6472	5.7349	0.8957	-2.424	4.8472	5.0064

cf) 유의수준 0.01에서 유의 (***)

결론 및 시사점



2050년까지의 예측값을 보면,

- 국내총생산, M2통화량은 큰 폭으로 감소
- 총저축률, GDP대비 재정수지는 소폭 증가
- 경제성장률, 소비자물가상슝률은 비슷한 추세

결론 및 시사점

한계점

- 데이터의 수집 시기가 다르고, 연도별 데이터가 많아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개수가 적음
- 미래의 내생변수의 변화를 보기 위해 사용된 외생변수(인구 구성비) 또한 예측값이기 때문에 오차가 커짐

완료한 추가 과제

- 데이터 수집 시기의 차이로 인해 사용하지 않았던 변수들도 사용해서 모형 적합하여 정확도 비교해봄
- 시계열이 아닌 OLS 모형으로 VARMAX 와 비교

추가 과제

• 분석 결과 해석하여 시사점 도출

